

“주민과 소통 ‘facebook’으로”

강석희 어바인 시장 등 OC 지역 시장들 줄이어

OC지역 시장들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을 비롯해, 오렌지, 샌타애나, 애너하임 시장들은 18~34세 사이의 젊은층들이 대화통로로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적인 이야기와 정책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매월 간추린 어바인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 고 있다.

강 시장은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지만 젊은 세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열심히 배워 활용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하나의 최신 트렌드로 배우고 활용 하지 않으면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단절된다”고 페이스북 이용 계기를 설명했다.

오렌지 시 캐롤린 캐비치 시장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뒤 일주일 만에 220명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캐비치 시장은 “페이스북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단한 도구”라며 “시의 정책과 조례 등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애너하임 커트 프링글 시장은 사



강석희 어바인 시장의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는 OC지역 시장들이 늘고 있다.

생활 보호를 이유로 본인 가족의 이름을 아는 경우에만 친구로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다.

프링글 시장은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생활과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정치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빌라파크시 로리 사순 매니저는 페이스북에 팬페이지를 운영해 일반적인 시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1500명 이상의 주

민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한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람들이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 친구 및 지인들을 비롯해 네티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